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23일, 6.25 한국전쟁 69주년 상기에배 및 연합 기념행사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거행됐다. LA 및 OC지역 참전용사들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는 미군 참전용사 및 관계자 20여 명과 한국국 참전용사 40여 명, 한인 교계 및 사회단체 지도자들과 지역 교민들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당했던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남가주 한인목사회와 은혜한인교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OC 기독교 교회협의회, OC 한인 목사회, OC 여성목사회, 남가주 장로협의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 대한민국교회, 3.1 여성 동지회, 본지를 비롯한 기독교 언론사에서 후원했다.

남가주 목사회 부회장 박세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이호우 목사(OC교협 직전회장)가 대표기도를, 부회장 이정현 목사가 성경봉독(시편 33:8-12)을, 은혜한인교회 장로성가단이 찬양을 한 후 한기홍 목사가 '신앙의 눈으로 보는 6.25



은혜한인교회에서 거행된 6.25 한국전쟁 69주년 상기에배 및 연합 기념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과 가족들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한기홍 목사는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6.25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이 오늘 날과 같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등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귀한 젊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지킨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금도 북한에는 5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고, 피 흘린의 순교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종교 자유와 함께 탄압받은 북한 주민

들의 인권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를 전한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김관진 목사는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소중한 생명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을 깊이 추모한다”며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깨닫고 분열된 국

론을 일치함으로 자유와 평화, 번영과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영 김 전 거주 하원의원은 “대한민국을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싸우신 참전용사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지금도 병원에서 투병하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미주 한인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위로하는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6.25 참상과 대한민국의 오늘이란 특별 영상이 상영됐으며 분단의 아픔을 담은 탈북자 주옥순 집사의 편지 “그리운 어머니께”가 낭독됐다.

이어 엄규서 목사, 정우성 목사, 최학량 목사, 김영구 목사의 인도로 조국의 국론통합과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동포와 북녘땅의 복음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으며, 참석자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한 목소리로 노래했다.

[관련기사 14면]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한 진터파크 장로교회 전경. ©CP

PCUSA, 최초로 '제3의 성' 정체성 주장 목회자 임명

버지니아 제임스노회, 제스 쿡 목사에 안수 예정
 노회 부의장, 임명에 필요한 모든 기준 충족했다 밝혀

미국장로교회(PCUSA) 버지니아 제임스노회가 교단 내 처음으로 자신을 제3의 성(nonbinary)으로 인식하고 있는 목회자를 안수할 계획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임스노회는 오는 29일 리치몬드 소재한 진터파크 장로교회에서 '제3의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제스 쿡(Jess Cook)을 목회자로 안수할 계획이다.

노회 부의장인 프레드 A. 홀브룩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쿡은 임명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그는 지난 6월 18일 설교를 전했고, 노회는 그의 설교를 검토했다. 행정위원회는 우리 헌법에 따라 그를 말씀을 전하

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장로교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신학적으로 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의 이같은 입장 변화로 대형교회들을 포함한 수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3의 성'으로 인정받은 제이미 슈페는 올해 초 자신의 생물학적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밝히고 '제3의 성'이라는 정

체성은 가짜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그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나이에 맞는 충고를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경험해 보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 해로움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생각이 체계는 오직 하나 뿐이다. 재발 생물학적 성이 아닌 다른 존재라는 환상을 따라 몸을 망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혜진 기자

교수직,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강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0TH ANNIVERSARY

Enrolling K-9 for Summer Program
 June 3 to July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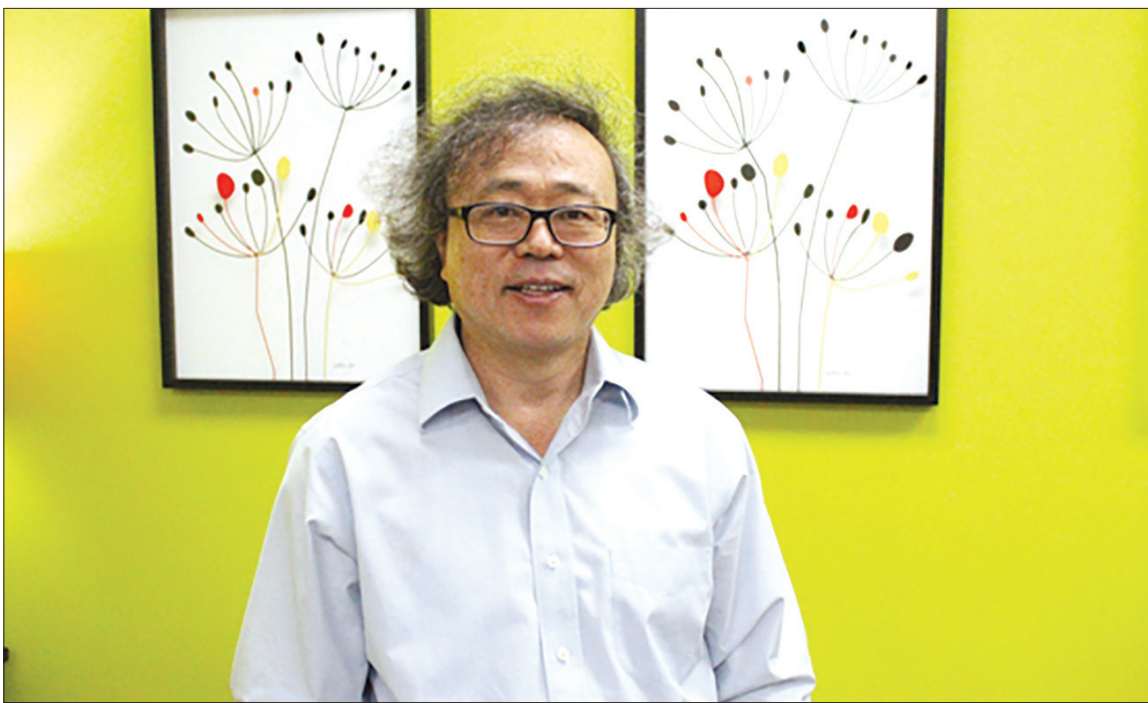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S. Highland Ave
 Wilshire Blvd
Now Serving K-3 at New Campus!

ACSIS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콘서트

“감사와 희망 노래할 것!”



본사를 방문해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설명하는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장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오는 7월 16일(화) 오후 8시, 월드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미주 한인 교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계 지도자를 비롯해 교민 1천 5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장인 윤임상 교수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이화여대 음악대학 김영해 교수, LA 신포니에타 김용재 지휘자, 파라과

이어지는 희망의 무대는 월드비선대학교 동문 채영석 작곡가가 개교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쓴 곡인 창작 칸타타 “요셉”을 통해 학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주회의 하이라이트인 칸타타 “요셉”은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변화를 이끌었던 위대한 힘을 음악으로 전달하며 “변화를 리드하는 월드미션대학교”라는 주제로 마련된 웅장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종합대학교로 나아가 갈 계획인 월드미션대학교는 온라인 프로그램의 확장을 통한 중국계, 라틴계 등 다문화권 학생 교육, 한인 1.5세, 2세를 비롯해 미국 내 타인종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한국어 영어 병행 교육, 간호학과와 경영학과 등 다양한 학과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기독교 정신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을 양성해 미서부의 대표적인 종합 대학교로 발돋움하길 힘쓰고 있으며, 기독교대학 연합회(ABHE), 신학대학원협의회(ATSS) 정회원 신학대학으로 신학, 음악, 상담, 온라인(수료증,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개설돼, 현재까지 1,005명의 졸업생이 목회자, 선교사, 교회음악사역자, 목회 상담가, 평신도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라는 목표와 신년 아래 1989년 3월 27일 설립됐으며,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 훈련과 학문으로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다.

티켓 문의 : 213) 388-1000, 김동욱 기자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 열린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가 오는 7월 6일(토) 저녁 7시 30분에 부에나 파에 위치한 ‘더 소스’ 쇼핑몰(6940 Beach Blvd.)에서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를 개최한다.

한국 인기 가스펠 싱어송 라이터 심형진 목사는 ‘은혜로다’, ‘아름다운 신’, ‘예수답기를’, ‘주의나라가 임할때’ 등의 인지도 높은 50여곡을 작사, 작곡했으며 20년 가까이 예수전도단에서 예배인도자로 활동했다.

굿네이버스 USA 이일하 회장은 “이번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를 통해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 받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꿈과 희망을 잃은 제 3세계의 빈곤 아동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심형진 목사

한편,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구호단체로 해외 35개 빈곤 국가에서 30만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결연 신청 및 찬양콘서트 문의: 877-499-9898

교수와 졸업생, 재학생이 함께 연주하는 뜻 깊은 공연 개교 30주년에 걸 맞는 화려하고 수준 높은 무대

이 국립 교향악단 박종휘 수석 객원 지휘자 등 월드미션대학교를 통해 배출된 유명 음악인들과 재학생이 출연해 감사와 희망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 더욱 주목된다.

55명의 오케스트라와 60명의 합창단이 출연하는 이번 음악회는 축제의 무대, 감사의 무대, 희망의 무대 등 세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축제의 무대에는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윤에스터 교수, 황소명 교수, 제프 풀라라 교수가 나서 피아노와 정통 재즈 음악을 연주하고, 감사의 무대에는 학교를 졸업한 최정삼금의 음악인들이 출연해 환상적인 음악의 향연을 펼치게 된다.

이번 음악회는 남가주 교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과 생동감 있는 음악을 근거리에서 밀도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음악회를 준비하는 윤임상 교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장해 온 월드미션대학교 30년의 감격과 눈물의 고백, 부흥의 역사가 음악으로 연출되어 최정삼의 연주자들을 통해 영광의 아리아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개교 30주년을 맞아 한인 이민 사회의 자랑이 되는 학교에서 더 나아가 국제화 시대에 세계 유

극단적 선택 예방, 주변의 관심이 가장 중요 마음힐링강연회 ‘힘들어도 괜찮아!’ 성황리에 개최



지난 22일 열린 강연회가 13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지난 22일(토)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와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이 공동으로 기획한 ‘마음 힐링 강연회’가 LA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최근 한인들의 급증하는 우울함과 절망감을 낮추기 위해 기획한 이번 강연회는 당초 50명 정원으로 예정됐으나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쏟아져 정원을 130명으로 늘려 진행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와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2부에 걸쳐 진행된 강연은 우울

함과 절망감을 벗어 던지는 법,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실제적인 방법과 함께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길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전해졌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한인가정상담소 안현미 심리상담부 매니저는 보통 자살을 택하는 이들의 마음 상태는 자신의 사랑 또는 소속감의 욕구가 좌절될 때나 삶에 대한 조절 능력을 잃었을 때라고 설명하며 “극단적 선택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며 “이번 강연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서로에게 안부 물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기독교일보 7월 일일관광
기차여행 라호야 코우부 바다사자 샌디에고 코로나도 섬
출발: 7월 13일(토) 포* 대형 버스, 일식 뷔페, 합* 기차 요금, 페리 요금.
\$99 성지 입장료, 및 모든 팁은 불포함

기독교일보에서 출발 하여 O.C. 발상지인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도착 자유 시간 - 태평양 연안 기차여행 즐기기 오션사이드 도착 - 렉시 일식 뷔페로 중식 후 라호야로 이동, 추억여행 즐기기[사진 촬영] 주어진 미션 수행 [부상: 다음 여행 무료] 샌디에고로 이동, 향만 관광 후 [페리 탑승] 코로라도 섬으로 이동 낭만이 있는 호텔 델 코로나도 탐방에 이어 기독교일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Tel.213.739.0403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죄 없는 자’ 되기보다 ‘용서함 받은 자’ 로 살게 해야

본지 주관 채동선 전도사 ‘목회자를 위한 설교 세미나’ 호평

본지가 주관하고 남가주 목사회,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미주 복음방송, 남가주 여성목사회, 비즈포스트 그룹, 이음카페가 후원한 채동선 전도사 초청 설교 세미나가 지난 24일, 엘에이 로텍호텔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마가교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담임하는 채동선 전도사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깨달아야 할 인간의 죄적 실존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진실된 목회를 해야 함을 전해 참석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했다.

당초 100명 참석을 예상하고 준비한 세미나는 예상 인원을 넘어 14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고,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전해져야 할 바른 설교에 대한 목마름과 고민을 해소하듯 곳곳에서 ‘아멘’이 터져나오며 시종일관 강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동선 전도사는 자신이 전하는 설교의 핵심을 소개하기 위해 먼저 본인의 이야기를 꺼냈다. 채동선 전도사를 목회자로 이끈 것은 예장 합동기독교신문 사장으로 한국 기독교 언론의 초석을 세운 조부 채기은 목사다. 어릴 적부터 기독교 신앙과 삶을 철저히 교육받았고 중학교 시절에는 한학을 공부했으며 고등학교 때는 노자와 장자에 심취했다. 대학 때는 철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 실패와 우울증, 술과 마약에 빠지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인생의 나락에서 철저한 무너짐과 실패를 경험하고 인간 존재 실존의 어두움과 공허함에 방황하던 그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기도원에서의 5년



남가주 목회자 초청 세미나를 인도하는 마가교회 채동선 전도사



본지가 주관한 채동선 전도사 초청 설교 세미나가 지난 24일, 엘에이 로텍호텔에서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다. 거기서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발견했다.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교만과 위선, 탐욕과 이기심이 자신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됐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더욱 어두움임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의 실존이 혼돈이자 흑암이었고, 사망의 존재임을 보게 됐습니다. 예전 동산의 아담은 3

인칭의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 이었고, 예수를 배신한 베드로,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다윗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실존이었습니다. 그 흑암 가운데 그분이 보였습니다.”

채 전도사는 흑암, 어둠, 공허, 사망과 같은 단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생명과 충만함으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자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도 싫은 나의 모습 가운데 온전해지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빛이 없습니다. 충만함이나 착함도 없습니다. 나의 없음

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난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가난, 그것을 깨닫고 마주할 때, 나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빛을 보게 됩니다.”

채 전도사는 “흑암이 흑암 스스로 헤어날 수 없듯이, 설교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한다던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신앙적 열심을 호소하지 않는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도 같은 우리 자신의 실존적 가난을 바로 깨닫게 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로 사는 것보다 용서 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며 “죄 없는 자가 되거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동선 전도사의 설교 세미나는 설교의 가치가 폄하되는 오늘날, 교회 위기 극복은 교회 형태나 패러다임의 전환과 같은 방법론적인 변화가 아닌,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 모두가 말씀 앞에 바르게 죄적인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임을 바로 알게 했다.

한편 채동선 전도사는 UCLA에서 물리학을, 방갈 대학교(Bangal University)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18년 전인 2001년 LA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개척해 출석교인 5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복음의 본질과 핵심,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한 설교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김동욱 기자

KAPC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로스앤젤레스노회 통합



LA 중앙노회와 로스앤젤레스노회는 지난 25일 남가주 든든한교회에서 통합 감사예배를 드렸다.

KAPC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와 로스앤젤레스노회가 통합됐다. 통합 노회 명칭은 로스앤젤레스노회로 하고, 통합 노회장은 로스앤젤레스 노회 빅토빌 예수마을 교회 김성일 목사가, 부 노회장은 전 LA 중앙노회 제자한인교회 성기선 목사가 선출됐으며, 두 노회의 재정은 통합하기로 했다.

LA 중앙노회와 로스앤젤레스노회는 지난 25일, 남가주 든든한교회(김현인 목사)에서 통합 감사 예배를 드리고, 두 노회가 하나되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회로 나아가자고 뜻을 모았다.

LA 중앙노회와 로스앤젤레스노회는 원래 한 노회였으나 8년전 노회

내 갈등으로 분열됐다가 이번에 모든 갈등 요소가 봉합, 해소돼 다시 로스앤젤레스노회로 통합하게 됐다.

통합 예배는 KAPC 총회장 양수철 목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 133: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LA 중앙 노회장 오세훈 목사가 축도했다. 회무는 양수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노회 통합경과 보고에 이어 양수철 목사가 통합을 선포했다. KAPC 전 총회장 김삼덕 목사가 통합 노회에 격려사를 전했다. 양수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통합 노회장 김성일 목사는 “8년전 노회가 나뉘질 때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다시 한 노회로

통합하게 돼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로스앤젤레스 노회는 과거 활발했던 선교를 다시금 일으켜, 해외 선교를 비롯해, 노회 내 개척교회 및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A 중앙노회와 로스앤젤레스노회는 지난 KAPC 제 43회 총회에 두 노회의 합병 청원건을 제출하였고, 총회가 두 노회의 합병을 허락함에 따라 이번 통합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 노회가 됐다.

임원명단: 노회장 김성일 목사, 부회장 성기선 목사, 서기 이대용 목사, 부서기 조정기 목사, 회록서기 양인수 목사, 회록부서기 최종연 목사, 회계 김현인 목사, 부회계 김강인 목사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칼럼/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17회>

사우스베이 한인교회 연합과 엔세나다 시니어선교사 연합

지난주 필자는 멕시코 엔세나다 지역에서 사역하는 시니어 선교사들 연합모임에 다녀왔다. 필자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사우스베이 지역의 교회 연합 찬양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사우스베이 지역에는 80개의 한인교회가 있다. 그 중 30여 교회와 목사님들이 연합회 활동에 함께 하고 있다. 매년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찬양제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9회째가 되는 데 이번 교회연합 찬양제는 선교 후원 목적을 갖고 찬양제를 준비하기로 했다. 예전까지는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를 중점으로만 진행했다. 지역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는데 연합 사역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하는 계기로 발전해 왔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교회연합으로 선교지 선교사들을 후원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모두가 좋게 받아들여서 진행하기로 했다.

지만 힘닿는 대로 적은 수의 영혼들을 돌보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감사로 보낸다 했다. 한 가정은 의사 가정, 한 가정은 음악인 가정, 한 가정은 교사 가정 등 이렇게 한 평생 각기의 전문 분야에서 일했던 평신도 시니어 은퇴자들이 연합선교사역에 마음을 가진 것이다. 한분은 의료 치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한분은 지역 커뮤니티 학교에서 에프터 스쿨 교사로 자원하여 300명에 이르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신앙교육을, 한분은 일반, 청소년 현지 악기 연주팀과 찬양팀을 운영하며 아름다운 찬양사역을 참으로 멋지게 해 나가고 있었다. 모두에게서 밝은 미소와 겸손함과 다른 사역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들이 풍겨졌다. 필자는 그분들을 만나고 보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평신도들이 은퇴 후에 선교지에서 남는 여생을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좋은 선교모델이 되겠다 생각했다. 필자의 교회에도 70이 넘는 은퇴자 연령의 성도들이 있다.

지역 교회연합이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회의 사역을 통해 한 마음으로 선교지를 후원하게 된 모든 과정이 꿈만 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운영위원들의 의논 끝에 시작이니가 일단 가까운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중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추천받았다. 각기 나름대로의 사역을 하다가 연합사역 또한 자유롭게 하시는 사역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교제하고 왔다. 물론 티화나나 엔세나다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매우 많다. 그분들 중 이번에 만나고 온 선교사들은 비교적 짧은 선교 기간인 것, 평신도 선교사란 것, 연령이 은퇴연령이라는 것, 그리고 전문인 사역자들이란 것 등이 특이할 만한 공통점이다. 평신도들이기에 교회 파송이나 고정 지원을 받는 것이 미약하다. 그리고 은퇴자들이라 연금이나 개인 자비량 선교비가 적지만 마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젊은 파송 선교사들처럼 큰 사역을 감당하지는 못하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일본의 성자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님

기독교 신자가 국민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 기독교는 세계적인 신앙인을 배출하였습니다. 필자는 일본의 신앙인 가운데 몇 사람들을 가슴으로 존경합니다. 필자가 존경하는 일본인 몇 사람을 소개하면 먼저 여류 소설가로 수많은 신앙적 작품을 남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작은 예수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는 1888년 7월10일 고오베에서 태어나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오베 신학교를 거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기독교 전도자요 사회사업가요 2차 세계 대전 후에는 하시쿠니 내각에 일원이었고 평화의 지도자요 그의 인도주의의 열렬한 전도에 감동되지 않는 이가 없을 만큼 전후 일본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개인자격으로 내한하여 당시 대통령 이승만을 방문하여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하였던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를 배우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토요히코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던 숙부는 동경대학에 들어가 가가와 가문을 일으켜 줄 것을 기대했으나 토요히코는 메이지 학원 신학교에 입학하여 갈등을 빚고 경제적 지원도 끊겼습니다. 그는 이어서 고베 신학교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합니다. 결핵에 감염되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자, 시골에서 요양하는데 이때 나가오 목사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당시 나가오 목사는 무려 5년이나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지만 카가와에게는 그의 진로를 바꾼 스승이 되었습니다. 핏덩어리를 토하면 걸레를 가져와서 닦아주고, 같이 밥도 먹는 나가오 목사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화를 받고 자신도 빈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 가가와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돕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빈민촌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옷을 벗어주고, 집으로 데려와 재워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고베의 빈민지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곳은 가난과 질병, 비참함과 범죄가 들끓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살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는 슬픈 현실에 놓인 어린이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며 구체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한 별의 의

제자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빈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천국옥'이라는 밥집을 열어 음식 배급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후원금이 중단되어 빈민촌 활동이 어려워지자 미국 프린스턴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마치고 교회나 신학교가 아닌 고베의 빈민촌으로 다시 돌아간 그는 빈민촌 구제 사업과 전도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제를 넘어서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노동자 자주관리 공장으로 칫솔공장을 열었습니다. 빈민촌에 일자리를 마련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어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빈민들의 생활고 개선을 위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사카 서구에 유한책임 구매조합, '공익사'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연결하는 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쌀, 소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취급하였으며 술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월드쉐어를 섬기면서 국제 개발을 도모합니다. 얼마 전 아이티 공화국 출장 후 쓰레기 마을 투찌에의 구호 활동을 고민하다가 문득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적 그리스도인으로 일본을 넘어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님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과 자활 자생의 정신이 현대 국제 구호 개발이 가야할 길인 듯합니다. 한국 사회 복지의 대부분인 대구대학교 설립자 성산 이영식 목사님은 가가와 토요히코의 영향을 받아 한국 사회 사업대학(대구대학교 전신)을 구상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입과 말로만의 신앙이 양산하는 수많은 부작용을 보면서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님의 실천적 사랑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남가주새언약교회 2019 VBS 성황리 개최

지난 22일, 남가주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복음의 축제인 2019 VBS가 "God is good"이란 주제를 가지고 32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남가주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 2019 VBS

'Creation', 'Cross', 'Celebration'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번 VBS는 창세전부터 계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하는 미래의 그 날까

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하며 말씀과 크레프트, 게임을 통하여 경험해 보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있었다. VBS를 총괄 기획하고 진행한 장지는 전도사는 "이번 VBS를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남가주새언약교회는 지난 2월에 LA 한인타운에서 OC 카운티 애너하임으로 이전하였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준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존 킴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대마헴프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신이 내린 항암식품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천연치료제입니다.
-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비노이드를 자국에 집중을 흡수하여 암, 뇌신경 치료와 노화방지 연구가 있으며 특히 (US는 미국합법화가 강력 추진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 ※ 대마시들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 ※ 만성질환,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연구결과 건강과 웰빙에서부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 대마씨 함초환은 미국 타임지에서 슈퍼푸드로 선정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250+tax

조규민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팀프함초 제품 개발자

함초는 Baja California 유네스코 지정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MANUFACTURED IN THE USA

CBD BAJAHAMCHO Inc. www.hempbiousa.com Tel.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권사(勸師)의 직무

디모데전서 5:4-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디모데전서 5:4-16

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6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7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육십이 될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10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한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는 자라야 할 것이요 11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12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13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니 14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휘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5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으나 16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 도와주교 교회로 집이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조직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 있었던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 제도적인 조직과 기능을 시도하면서 교회 터를 닦아가는 과정에 있어 사도바울이 생각하는 기준은 교회 안에 혼자 살게 되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피우고 다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교회 중직으로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정욕을 앞세워 시집을 가고자 할 때 그를 직분자로 세운 것이 무색해지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처럼 교인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만 만들어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 그 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말쟁이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특히 이들이 직분을 가졌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느 곳에서도 한결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른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런 말쟁이들은 자신도 영적인 소망을 결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직분을 빙자해 실족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

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습시다. 그런데 행동들은 꼭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타나니 그것은 영적소속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혼자된 과부들은 자녀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모슬하에서 자라면서도 그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그 집의 가정이 되어 주셔서 그 가정을 하느조건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더 잘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 조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 입장이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는 것은 그저 세상재미에 즐거워하고 세월을 방탕하게 지내는 여자들은 육적으로는 살아 생동감 있게 보이지만 영적인 상태로 보면 죽은 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혼자된 몸이라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로서는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일편단심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 더 잘 섬기자는 목적으로 일거리를 찾아가며 봉사하고, 헌신,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합니다.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주지 못했다고 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육십이 될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한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는 자라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곧 장로회에서 세우는 권사의 자격기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에는 나이 육십이 되어야 세상 정욕도, 세상을 향한 기대와 꿈도 포기하고 석양 길에서 오로지 영적인 소망만을 알차게 가꾸어 믿음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여성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권사는 권할 권(勸), 스승 사(師)를 사용하며 이들은 교리를 잘못 깨달아 신앙이 변질하거나 원래 믿음이 비뚤게 자라나는 사람들을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찾아가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권사를 세울 때는 이런 면을 유의하여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정절에 있어서도 한 남편의 아내인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행실의 증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생활을 했다고 하는 증거,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라야 권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는 남편도 믿음의 사람이야 합니다. 이는 권사뿐 아니라 장로,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인이나 남편과 믿음이 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직분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내외가 다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 섬기자는 사명감이 일치하는 부부라야 직분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사들이 할 일은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나그네들을 대접하려면 우선 가진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사가 되어서도 남들로부터 얻어먹는 신세라면 참으로 곤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권면한다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사명감이 간절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권사들은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물을 떠 놓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하시니 이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씻긴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말을 잘못하여 싸움 일이 생겼을 때 이를 타일러 서로 사과하게하고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 교회를 더욱 은혜 분위기로 만

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권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권사가 되면 교회 안에 패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행세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권과 목적으로 당을 지어 교회 안에 어려움을 만들곤 하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들은 한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좇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자기 신앙이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신앙주관이 정통하고 영적 체질신앙이 생활로 선한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서 교회 안에서나 자녀들에게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주를 사랑하고 영적인 소망을 갈망하는 간절한 신앙과 사명이 뜨거워져서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서 희생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기쁨을 목적으로 양무리들의 분이 되는 섬기는 신앙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줄 수 있어야 겠고 본인의 신앙이 이질적으로 비서서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신앙을 가진 자에게 권사의 직을 준다면 그로 인해 솔한 양떼들의 신앙이 변질될 폐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책에 적혀 있는 권사의 자격은 여신도 중 만 40세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흠이 없고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 와 고난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사된 자들이 이를 명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브 방송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GAIA CODYCEPS

가이아 동충하초

처음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 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평소평이 94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한국 가이아 팍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코디세핀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한국 식약처
안전 검사됨
(No. 2013-0372219)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한병 (분말) 100g
\$130+Tax



NET WT. 3.5oz (100g)
Dried Cordyceps Powder

가이아 동충하초 맛있게 드시는 방법!



끓는 물에 동충하초 분말 1스푼을
아침, 저녁으로 골짜게 먹습니다.



우유나 우유와 타서 먹습니다.
요거트에 타서도 맛있게 먹습니다.



김밥재 넣어서 먹거나 밥이나 국물
저어 먹습니다. 각종 요리에 푸르게 먹습니다.

가이아 동충하초의 성능

- 01 함양효과 및 면역력 향상**

동충하초 하면 함양 성분은 배농을 수가 없고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 효능하면 함양효과를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평생에 걸맞게 동충하초는 높은 영양 밀도의 함양성분으로 함양 효능이 뛰어나 각종 암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함양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은 동충하초의 성장 도중에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암세포 자체의 억제와 번식 속도를 억제하는 효능을 의미합니다. 환절기에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을 예방 하는 '면역력' 향상에 큰 효능이 있습니다.
- 02 혈당 조절**

동충하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혈당기능을 강화 시켜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관리에 효과적이고,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혈당 수치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커서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 03 혈압조절 및 생식기 기능 강화**

동충하초에는 칼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 성분은 혈압을 정상화 시키는 데에 효능이 뛰어나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E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노화방지에 탁월하고 생식기 기능 향상 및 강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정력 강화 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를 복용 하고 계십니다.
- 04 간 기능 향상 및 회복**

동충하초에는 다당체, 미네랄, 에르고스테롤 과 같은 다른 식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간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시면 간의 손상을 막고 각종 간 질환을 예방 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년초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간 뿐만 아니라 순환기 계통의 질병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 05 다이어트 효과**

다이어트에도 동충하초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충하초가 몸 속에 있는 중성 지방을 태워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성인병의 근원 이기도 하죠? 성인병 예방과 비만관리에도 큰 효능이 있겠네요. 비만 환자분들과 여성분들께겐 이처럼 큰 효능이 없네요!
- 06 두뇌세포 활성화 기능**

두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예방, 마약중독 후유증, 신경안정, 기억력 증진에 효능이 있습니다.

문의 213.434.1170

prozusal@gmail.com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SUMMER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교회가 목소리 내야

이정훈 교수 “종교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 침해 안 돼”

애틀랜타한인목사회(회장 류도형 목사)와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선 목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회’가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시온연합감리교회(담임 송희섭 목사)에서 성료됐다.

한국 이정훈 교수(엘정책연구소)를 초청해 첫째 날 ‘기독교와 건국’, 둘째 날 ‘성경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 셋째 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특별히 ‘6.25 제 69주년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다.

이정훈 교수는 교회 내에서 조차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정교분리,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해 특유의 시원시원하면서도 법학자다운 날카로운 해석, 더불어 역사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회법이 생겨나게 된 배경까지 다루며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 명쾌하게 풀어냈다.

“역사 속에서 헌법이 종교, 모임, 이동 자유 등을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강조되는 정교분리의 원칙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서로 특정 종교나 종파가 국가권력과 연합해 다른 이들을 차별해 온 유럽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교부인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교회에서 절대 정치를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성



이정훈 교수

숙한 신앙인이란 정치를 생각하고 기독교의 믿음에 합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국가권력이 종교인이 갖는 예배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문제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유럽과 캐나다의 경우처럼 기독교인이 표현의 자유에 기반해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고소당하고 제지당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

올해 서북미 5개 지역 목사회 체육대회 오레곤서

서북미 지역 목회자들의 친선, 교류의 장인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가 올해는 오는 7월 29일(월) 오전 10시, 오레곤 포틀랜드 이스트 모어랜드 코트앤스윙(East Moreland Courts and Swim)에서 열린다.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체육대회는 20년 이상 지속된 전통있는 행사로 시애틀, 웨드필웨이, 타코마, 올림피아 등 워싱턴 주 지역을 비롯해 오레곤과 캐나다 밴쿠버 등지에서 사역

하는 모든 한인교회 목회자와 가족, 약 300여 명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한 자리에 모여는 친목과 목회소식을 공유하는 서북미 지역 한인 교계 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모임 중 하나다.

또한 매년 시애틀 총영사관을 비롯해 서북미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이 참석해 목회자들과 교류하며 서북미 지역 한인 동포 사회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풀원 기자



2019 할렐루야대회 3차 준비기도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

1차 준비기도회 이후 최다 인원 참석

2019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가 20일 오전 10시 30분 뉴욕그레이넬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양민석 목사의 인도로 최은종 목사 기도, 김영호 장로 성경봉독, 김승희 목사 설교, 김명옥 목사 통성기도 인도, 박드보라 목사 통성기도 인도, 이창종 목사 광고, 박태규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회무는 정순원 목사의 사회로 이은수 목사 업무 보고, 정순원 목사 인사 및 보고, 김재권 목사(준비위원장) 할렐루야대회 및 목회자세미나 안내, 정권식 장로 폐회 및 오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희 목사는 ‘마음을 상하지 말라’(민 21:4-6)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자들은 여러 상황에 있어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상함과 성도들로부터 오는 마음상함을 구분함이 중요하다”면서 “아브라함, 수로보니게 여인, 나아만 장군 등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시험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 김승희 목사는 “목회자는 성도들로

부터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마음이 상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서 “모든 상황을 역사의 주관자이자 심판자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가야하는 길이 바로 목회자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준비기도회에는 임실행위가 함께 진행됐던 지난 1차 할렐루야대회 준비기도회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해 올해 할렐루야대회에 대한 뉴욕교협 회원들의 관심을 나타냈다.

올해 할렐루야대회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정연철 목사(삼양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진행된다. 또 할렐루야대회 기간 중에는 목회자세미나가 13일 이용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갖는다.

할렐루야대회 주제는 ‘성결한 삶’이며 현재 강사 정연철 목사는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할렐루야대회 말씀을 준비하는 등 뉴욕지역에 말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순원 목사는 이날 회원들에게 “할렐루야대회 준비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회원교회들에 감사드린다”면서 “영적 각성이 필요한 뉴욕지역의 부흥을 위해 성공적인 할렐루야대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대원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화사원 순경교회 스나무처럼 늘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 아침예배 오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예배) 오전 9:30
3부예배(자세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장년기도모임(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영혼으로 이끄는 세례를 행하며, 이만가지 영혼을 치료하며, 선교를 영혼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미지리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i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후 2:3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한여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민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후 2:30

영아예배 오후 10:50
유초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6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건너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아예배 오후 10:50
유초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음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리타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분당) 저녁 8:30
리태에(영인예배) (스페인어)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리태에(영인예배) (스페인어)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믿음,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양육예배 오후 7:30
영아부 유아/이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리타노 오후 6:3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힘쓰고, 소신, 초신, 장신의 힘, 바른교회관의 힘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령과 진리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아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으로 새움 받아 함께 할거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30(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3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영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친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CCC, 한기총 탈퇴 “김준곤 목사 한기총 설립 관여 안해”



故 김준곤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대표 박성민 목사, CCC)가 1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CCC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한기총 회원단체로 참여해 왔으나, 활동은 하지 않았다. 한기총 자료집에도 회원단체 목록에도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CCC 측은 한기총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환경적 목사사 김준곤 목사(한국CCC 설립자)가 한기총 설립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준곤 목사는 한기총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바 없다”며 “앞으로 김준곤 목사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립인식 목사(노랑진교회 원로, 예장 통합 중경총회장)가 “영락교회 환경적 원로목사가 한기총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으며, 각 교단 중경총회장 등 40여명이 산파 역할을 했다”며 “김준곤 목사는 대학생 선교단체 대표로 한기총 설립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한 내용도 소개했다.

립 목사는 “CCC 김준곤 목사는 교단 총회장을 지낸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대웅 기자

상산고 이어 ‘미션스쿨’ 안산동산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

전주 상산고에 이어 기독교 미션스쿨인 안산동산고도 20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로 재지정되지 못했다. 상산고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안산동산고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교육청 지표가 학교에 불리한 항목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학교 구성원과 긴밀하게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동산고등학교 홈페이지 화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은 2018년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로 70점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60점)보다 10점 높았던 것이다. 특히 전북은 ‘80점 미만’으로 사실상 ‘자사고 재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과거엔 최대 5점까지 감점했다면 올해는 최대 12점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 지표의 만점 기준도 이탈률 ‘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높였다. 부모의 직장 등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 ‘예외 규정’을 뒀었는데 이것도 삭제했다. 이밖에 ‘교원 1인당 연수’ 시간을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렸다. 때문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가 재지정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의사사를 거듭 밝혔고, 자사고 및 학부모 측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부모들은 수차례 자사고 폐지 규탄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센 반발에 나섰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국 43곳 중 24곳이다. 재지정 평가 결과는 내달 초까지 나올 예정이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학교 중 기독교(개신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는 이대부고, 이화여고, 배재고, 계성고, 신일고 5곳이며, 천주교 학교로 동성고가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들 기독교 학교들이 자사고로 재지정되지 못할 경우 기독교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출범한 13개 자사고 중 6개교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있었다. 6개교는 경희고, 배재고, 이대부고, 중앙고, 세화고, 우신고이며 이중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는 이대부고, 배재고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이를 철회했다.

‘화재’ 개척교회 가정의 딸 하늘로... “천국에서 보자”

지난 8일 참미워십의 민호기 목사를 통해 알려진 개척교회 가정의 딸 구하경 양이 19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지난 7일 구태극 목사(대구 향기로운은혜교회)의 가정을 뒤흔 화마는 30분 만에 사택 전체를 태웠고, 사모와 두 딸이 화상을 입었다. 그중 뒤늦게 대피한 17살 딸 하경의 상태가 매우 위독했다. 하경은 출입구가 막혀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야 했고, 그 과정에 허리와 대퇴부 골절, 자궁과 장기 손상, 전신화상 80%등의 손상을 입었다. 사모도 40%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러나 장년 6명, 청년 4명이 출석하고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던 구 목사에게 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게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구 목사는 “연명치료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황” “아이의 손을 놓을 수 없기에 기도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하경이를 맡겨드리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 “딸이 잘 버텨준다면 수술을 해볼 수 있었

으면 한다”며 기도를 요청했고, 딸 하경은 12일 3차 수술을 마쳤다. 그러나 19일 오후 8시 8분경 끝내 숨을 거뒀다. 하경의 발인예배는 21일 드려졌고, 청평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구 목사는 지인을 통해 “하경이 가는 길, 외롭지 않아 보인다.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 온 장례식장 안과 밖을 채웠고,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위로를 전해주신다.”고 전했다. 이 지인은 “첫날 경찰서 조서 꾸미러 갔다 오셔서 아무도 없을 때 하경이의 영정사진을 보시며 소리 내어 우시던 목사님, 이곳에 있던 못하지만, 병원서 마음 아파하시며 힘들어하실 사모님, 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시길 기도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기독교장년면려회(CE)는 “사모님께서서 큰 딸이 탈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화상 정도가 꽤 심하시다. 막내 딸도 화상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기도와 도움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김신의 기자

'백악관 신앙자문' 폴라 화이트 목사, 트럼프 재선 위해 기도



지난 2019년 5월 4일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뒤에 폴라 화이트 목사가 서 있다.

미국 백악관 신앙자문을 맡고 있는 폴라 화이트(Paula White)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믿는다"면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는 '악마적인 네트워크'에 대항하여 기도해달라"고 했다.

1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2020년 대선 캠페인의 시작을 알린 그녀는 "난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을 18년 동안 알고 지낼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그는 '우리는 정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폴라 화이트 목사는 이어진 기도에서 "주님의 영이 우리의 대통령 위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시편 89편 17절과 시편 2편 1~4절 말씀과 같이 당신의 은혜가 그의 뿔과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주와 그의 기름부음을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슬을 끊고 그들의 족쇄를 던져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당신은 이 때에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뜻의 신비와 사람들의 눈 앞에서 사라져야 할 모든 '악한 것'을 알게 하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부르신 당신의 목적에 대항하는 모든 악한 연합들이 부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소서"라며 기도를 마무리했다.

폴라 화이트 목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과 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전략을 상대로 승리할 것을 선포한다. 그의 부르심과 운명을 완성할 것을 선포한다"고 외쳤다고 한다.

달라스 목회자이자 트럼프 지지자인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Jeffress) 목사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 재선을 위한 공식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스럽다. 이곳에 믿을 수 없는 에너지가 넘친다. 집회 전 대통령과의 대화 역시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우리의 위대한 대통령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글을 남겼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러나 생명의말씀 교회의 브라이언 잔드 목사는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세우고, 이 세상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섬길지라'고 말씀 하셨다"는 글을 남겼다.

강혜진 기자

美 리버티신학교, 학생수 줄어 교직원 감축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위치한 리버티대학교 내에 세워진 자유의 탑. ©리버티대학교

미국 리버티대학교의 신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교직원 수십명을 줄였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롤링스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직원들은 지난달 말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버티대학교 제리 팔웰 주니어 총장은 "교수 인력 감축은 온전히 사업적인 결정이며, 3~4년 전에 이미 했어야 했다"면서 "전임 사역자에서 직업을 가진 평신도 기독교인에 이르러의 자산 손실액을 기록했다고 밝힌 후, 2017년 유니온신학교와 합병한 바 있다."

리버티대학교의 롤링스신학교는 최근 몇 년 동안, 신학적 관점을 넘어서 미국 전역에서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신학교들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성공회신학교는 2015년 이후 약 790만 달러의 자산 손실액을 기록했다고 밝힌 후, 2017년 유니온신학교와 합병한 바 있다.

美 연방대법원,

동성혼 케이크 거부한 제과점 주인 손 들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의 자유와 동성커플 차별을 둘러싼 논쟁을 일으킨 '웨딩케이크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이 신앙을 이유로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7일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 요구를 거부한 미 오리건주 제과점 멜리사 스위트케이크 소송 관련 사건을 오리건주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소송의 본질에 해당하는 종교적 사유가 차별 금지법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항소법원이 사건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멜리사 스위트케이크'(Sweet Cakes by Melissa)를 운영 중인 기독교인 멜리사 클라인(Melissa Klein)과 애런 클라인(Aaron Klein) 부부는, 지난 2013년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절한 혐의(차별금지법 위반)로 13만 5천 달러(약 1억 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클라인 부부는 이번 아니라 동성애자 등에 의해 강력한 항의를 받고 구매반대 운동까지 겪어야 했다.

멜리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런(남편)은 케이크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동성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당했는데, 이는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종교 자유의 권리를 강탈한 것"이라면서 "오리건주의 이번 판결에 따르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보장된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여기에 있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동성커플을 차별한 제과점주에게 벌금을 매긴 주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치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W.S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연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재삼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월례예배 오후 1:30
이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담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영감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 / F. (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당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봉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믿음이 섰도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독무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 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침나무 오전 9:30, 11: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성서배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화교(화)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 초, 중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전 5:30(토)
대학원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일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예수 영으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선물로 세운 믿음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등부, 대학원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어진 신의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에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에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에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신 오전 9:30(금)
중보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5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3부 오후 7:00(수) 제자서신 오전 9:30(금)
중보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에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짐새를 새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c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8: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학교 사회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에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ca.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이찬수 목사, '반동성애 운동가들' 만나 "거듭 사과하며 진정성 믿고 기다려달라"



이찬수 목사가 21일 반동성애 운동가들을 만났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영길 소장, 염안섭 원장, 주요섭 목사, 민성길 교수, 이 목사, 조영길 변호사, 김은진 목사, 윤치환 목사 ©반동연 주요섭 대표 제공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21일 교회를 찾은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준비위에 따르면, 이날 민성길 교수(연세대의 명예), 조영길 변호사, 주요섭 대표(반동연),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김영길 소장(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이 이 목사를 만났다.

준비위 한 관계자는 "(이 목사가 준비위 측의) 발언을 적극 경청하셨고, 거듭 사과하며 앞으로 분당우리교회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하셨다"며 "복음주의진영의 동성애 반대운동 철학과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돼 분당우리교회가 한층 성숙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가도록 힘 모아 기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비위는 이날 발표한 '2019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평가회 보도자료에서 최근 논란이 된 분당우리교회 한 부목사의 설교를 언급하며 "낙담하며 슬퍼한 부분이 있었으나 두 번이나 거듭된 사과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를 수용하며 용서하기로 했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일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이 논란이 계속되면 모두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분당우리교회에서 언급된 '동성애연구소 설립'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팔로워 80만' 인터넷 설교자 증가 추세



미르쿠르저 목사 ©페이스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설교자들도 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잠천 용사 출신으로 시카고에서 사역 중인 마르쿠스 로저(33) 목사는 페이스북 팔로워수가 80만 명이 넘는다. 이는 새들배교회 리 워렌 목사보다 많고 조엘 오스틴 목사(110만 명)보다 조금 모자라는 수다. 로저 목사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난 그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가 가장 최근에 올린 말씀 영상은 이미 수 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 로저 목사는 자신의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그 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평생 교회에 있었다. 어머니는 독일 미혼 여성으로 4명의 혼혈아를 두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항상 외부인이었다. 흑인교회에서

우리를 우습게 보았고, 백인교회에서 어머니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였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가족들의 외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에 정착할 틈새를 찾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깊은 절망이 찾아왔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고 마침내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난 집을 그분께 내려놓았다. 그리고 성경을 간절히 읽기 시작했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난 정말 갑갑했다."

이후 영감을 받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아웃사이더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눠주신 것을 그들과 나누고 싶었고, 누구에게나 이를 나누었다. 있는 그대로 나의 약함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과 나눌 것"이라고 했다.

또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가 이끄는 라이프닷처치(Life.Church)에서 커뮤니케이션 팀을 맡고 있는 루신다 로하스 로스도 10여년 전에 온라인 플랫폼 사역을 시작했는데 참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라이프닷처치 교회는 10개 주에 약 32개 캠퍼스를 두고 있는 대형교회다.

크레이그 목사는 "오늘날 지구 상에는 약 70억 명의 인구가 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사역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北, 17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

미 국무부가 20일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17년째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8~12만 명이 정치범수용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있으며, 종종 폭력과 고문, 의료지원 부족,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여성 수용자들의 경우 성적인 학대를 당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단속 수준 1~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 여성들을 비롯해 심지어 어린 소녀들이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중국 집창촌에 팔려가거나 인터넷 성매매에 넘겨진다고 밝혔다. 이들이 중국 남자와 강제결혼을 당하거나 술집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들 여성들은 흑시라도 중국 공간에 발각돼 복송이 될 경우, 처형의 위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인권 침해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21개국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은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3등급으로 지정됐다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바는 올해 추가로 3등급에 합류했다. 미 국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사태와 의사 해외파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신매매 등을 이유로 꼽았다. 미국은 인신매매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원조를 제한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지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인신매매범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해당 국가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VOA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33개국은 1등급으로 분류됐다.

강혜진 기자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 찬양 사역자 구함
- 기타 연주 하시는 분
- 드럼 연주 하시는 분
- 바이올린 연주 하시는 분
- 기타 악기 연주 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매달 2커플에게 드리는 야외촬영(2시간)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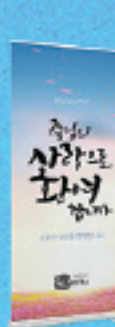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BANNER



\$65
Stand X-Banner

\$140
Retractable Banner

\$160
(디자인 포함)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edia@gmail.com

이찬수 목사 “이유 여하 떠나, 깊이 사죄”

홈페이지에 ‘치유와 회복을 바라며 드리는 글’ 게재

부목사에 대해 “잘 지도하겠다”
진심어린 사과 받아주기를 당부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25일 ‘치유와 회복을 바라며 드리는 글’을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 이 목사는 이 글에서 “지난 6월 5일에 있었던 부목사의 수요 설교 이후로 지난 몇 주 동안 모두가 아픈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경위를 정리하고, 이후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려 합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일로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하나로 뭉쳐도 싸워나가기가 버거운 현실이기에 용서와 용납을 통해 하나 되기를 기도한다. 논쟁이 멈추어지고 상처 입은 모든 분들이 치유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논란이 된 설교를 했던 부목사에 대해 “잘 지도하겠다. 아직 젊은 사역자다. 비록 실수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 중심에는 복음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다”며 “두

번에 걸쳐 진심으로 드린 사과를 공허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아래는 해당 글 전문.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6월 5일에 있었던 정진영 목사의 수요 설교 이후로 지난 몇 주 동안 모두가 아픈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경위를 정리하고, 이후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려 합니다.

1. 정진영목사의 수요 설교를 즉시 내린 이유는, 그 설교에서의 일부의 표현들이 동성애 반대운동에 앞장서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상하신 분들이 그 설교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기에,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당사자인 정진영목사의 요청으로 즉시 설교를 내리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교 원본이 사라지자 억측이 난무하면서 오해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저희 교단에서 ‘정진영 목사 면직’ 요구가 확산

되면서 정 목사의 설교 동영상 복구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2. 이제, 이 공간에 올려 드렸던 정진영 목사의 ‘수요 설교 영상’을 다시 내리려고 합니다.

상처 받으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 ‘정진영 목사 설교 동영상’을 힘들어하시고 설교를 내려주시기를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진영 목사도 이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내려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 설교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컸었기에 서둘러 내려가는 이것이 또 다른 분열의 불씨가 될까 염려가 많았기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설교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내용과 적절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으로 인해 형제가 큰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의 불씨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됩니다.

4. 이 일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특히 분당우리교회와 담임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습니다. 이미 저희교회 전체 교역자들에게 이 사실을 나누고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나 저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성장해 가려고 합니다.

5.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 오해를 드린 원인 제공을 저희가 했기에 이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우리교회 입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올렸던 “입장문”과, 그 입장문 안에 들어있던 정진영 목사의 수요 설교를 내리면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조치가 또 다른 오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하나됨’을 이루는 결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곡한 글을 드립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찬수 목사 드림.



참전용사인 김정섭 장로. 67년 전, 아득한 기억을 더듬었다.

67년 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속수무책.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 파죽지세. 우리에게 남은 건 부산 포항 등 남쪽 끄트머리 일부에 불과했다. 또 한 번 나라를 잃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 마침내 인천상륙작전으로 반격의 서막이 오른다.

불타는 집과 피난의 황망함이 있던 폐허. 경북의 성에서 나고 자란 19살의 청년은 친구들과 자원입대를 결심한다. ‘나라가 없어질 지도 모르는데, 생명 부지에 안달해서야!’ 두 주먹을 불

을 채우고 ‘포화 속으로’ 뛰어든다. 맥아더의 진격이 있던 바로 그 때, 그 무더웠던 여름.

육군 6사단 수색대. 그가 배치됐던 부대다. 숙절없이 밀리던 전세는 다시 뒤집혔다. 복진을 거듭했다.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올랐다. 통일을 목전에 두는 듯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반전이 일어난다. 중공군의 참전. 전세는 또 기울었다. 계곡을 타고 오르던 우리 군은, 몸을 숨긴 채 능선을 따라 남하하던 중공군에게 포위되고 만다. 그도 그 속에 있었다. 대오

“6.25 아픈 역사지만 하나님 도움 잊지 말아야”

[특집 인터뷰] 참전용사 김정섭 장로, 67년 전의 기억

끈 쥐었다. 그리고 총 한 번 잡아본 적 없던 이 학도병은, 그날 저녁 주먹밥 하나로 배

를 채우고 ‘포화 속으로’ 뛰어든다. 맥아더의 진격이 있던 바로 그 때, 그 무더웠던 여름. 육군 6사단 수색대. 그가 배치됐던 부대다. 숙절없이 밀리던 전세는 다시 뒤집혔다. 복진을 거듭했다.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올랐다. 통일을 목전에 두는 듯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반전이 일어난다. 중공군의 참전. 전세는 또 기울었다. 계곡을 타고 오르던 우리 군은, 몸을 숨긴 채 능선을 따라 남하하던 중공군에게 포위되고 만다. 그도 그 속에 있었다. 대오

를 정비할 겨를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이육교 부상을 당했다. 다리가 부러졌다. 평양에 있던 야전병원에서 몸을 누였다. 하지만 퇴각을 피할 수 없었다. 문제는 다리였다. 누군가 자신을 옮겨야 살 수 있었다. 일군의 청년들이 나타났다. ‘기독교 청년 봉사대’라는 완장을 찼다. 공산 치하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들이 그를 진남포 항구까지 날랐다. 거기에 덴마크와 스웨덴이 보낸 병원선이 도착해 있었다. 이걸 타고 이를 향해 끝에 부산 육군병원에 다시 몸을 맡겼다. 12월 7일. 그도 몰랐던 날짜는 어느새 해를 넘어가려 했다. 그렇게 살아남았다.

아득한 기억이다. 머리칼은 썩고, 기력은 쇠했다. 67년이 지나 86살이 된 김정섭 장로. 그 때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병상에 있다가 제대를 했다. 이후 38년을 교직에 바쳤다.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사무국장

으로 있다.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며칠 앞두고 참전용사인 그와 마주했다.

-공산화를 언급하셨는데, 6.25는 어떤 전쟁이었나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세력 간의 이념투쟁이었지요.”

-교회도 반공에 앞장섰지요?
“그럴 수밖에요. 공산주의가 뭐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적 사

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와는 섞일 수가 없지요. 지금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물론 기독교의 정신은 어느 한 이념에 갇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지만, 공산주의는 반대해야 하는 겁니다.”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지요. 6.25가 발발하자마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시 소집됐고, 북한군 철수를 요구했어요. 그레도 멈추지 않으니까 참전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모호한 점이 있어요. 당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였는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참전이 어려웠다고 해요. 마침 소련이 회의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신기하죠. 나왔으면 반대했을 테고, 그럼 우리나라가 어찌됐을 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시려는.”

-늦선 땅에서 많은 외국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특히 미군 전사자가 많아요. 요즘 미국을 두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해야 해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쓰라린 기억이지만 모두 잊지 말고 후대에 가르쳐야 할 역사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이라면 하

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잊어선 안 되지요.”

-그런데 점점 잊히는 듯 합니다.

“나이든 어른들도 그러니... 젊은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 저처럼 참전했던 용사들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같이 입대했던 전우들도 생존해 계신가요?

“있긴 하지만, 그 때 많이 죽었어요. 살아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미안하기도 해요.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니 고마워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서 통일이 되어야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왜 통일을 해야 하느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굶주리며 자유를 억압당하는 우리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이 허물어졌지요. 그들을 하루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도 찾아주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고픈 자를 먹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건 기독교인의 의무니까요. 그런 뒤 완전한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겠지요. 결국 이를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니.”

김진영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모 집 과 정

학사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석사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석사
- 기독교교육학석사

박사과정

- 목회학박사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학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남가주 6.25 연합행사 포토



은혜한인교회에서 거행된 6.25 한국전쟁 69주년 상기에배 및 연합 기념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참전용사들



은혜한인교회 장로 성가단



기도회를 인도한 정우성 목사, 최학량 목사, 엄규서 목사, 김영구 목사



은혜한인교회에서 거행된 6.25 한국전쟁 69주년 상기에배 및 연합 기념행사



설교하는 한기홍 목사



미국 국가를 제창하는 참전용사들과 영 김 전 가수 하원의원

유기성 목사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전할 준비 돼 있어야”

‘6.25 전쟁 69주년’ 맞아 칼럼 게재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가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25일 SNS 칼럼을 게재했다.

유 목사는 “69년 전 오늘, 6.25 전쟁이 일어났다. 민족의 비극, 가슴이 아파도 끝없이 아픈 그런 슬픔의 전쟁이었다”며 “저희 집안도 피난민이었고, 아버님과 큰 아버님이 국군과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너무나 고통스런 날”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비참한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6.25 당시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자신들 죄 때문이라 애 통하며 회개했다”며 “실제로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라는 이상승배의 죄를 범했다. 그 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는 죄를 범했다. 피난민들이 부산에 집결했을 때,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 이상승배했던 죄,

분열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라를 구해주시길 간절히 간구했다”고 회고했다.

유기성 목사는 “그 때 기적과 같이 전세가 바뀌었다. 인민군은 낙동강을 넘지 못하고 유엔군이 참전했는데, 당시 유엔군의 참전은 기적이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성공할 확률이 없었던 인천상륙작전도 성공했다. 이렇게 8.15 광복처럼 6.25 전쟁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전쟁의 와중에서 한국교회는 정결해졌고, 성도들의 믿음은 놀랍게 자랐다. 오직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버리고 남으로 피난길을 떠났던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가 어땠겠냐”며 “그렇게 한국교회 교인 특유의 생명을 거는 열정적 신앙이 생겨났다.

북한에서 찬란하게 꽃피었던 기독교 문화가 남쪽으로 물러왔고, 그들이 남한 교회 부흥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놀랍게 복을 주셨다. 세계 어디에도 식민지에서 이처럼 빨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갖춘 나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부흥한 나라가 없었다”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6.25전쟁의 교훈을 잊어 버려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6.25 전쟁 때의 회개를 잊으면 안 된다. 그 간절한 기도를 잊으면 안 된다.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전쟁의 고통은 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은 6.25 당시보다 더 악한 정권이 됐다. 통일은 오겠지만, 준비없이 맞은 통일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기성 목사는 “자살률, 낙태율이 세계 제일이고, 음란한 풍조가 만연한 이러한 정신 상태로 어떻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전쟁을 막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며, 통일이 된들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반쪽짜리 믿음과 사랑,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물든 저북한 동포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목사는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분명하다”며 “자본주의의 썩은 악취가 온 땅을 진

동할 때, 자본주의의 악점을 극복한 것은 교회였다. 노예 제도를 해방시킨 것이 교회였다. 병약자들과 노인들, 여인들이 인격대우를 받은 것은 교회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나라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살며 복음과 사랑으로 무장하여 화해의 구심력이 돼야 한다”며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목사는 “여러분은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생각만 하는 것이 기도 아니다. 걱정하는 것도 기도는 아니다”며 “아무리 바빠도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빠트리면 안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기도”라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총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석사,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김학성담: 조경호 박사 T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성경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하이티 투찌에 마을에 희망을 전합니다”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하이티 투찌에 마을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강 목사를 만나 월드쉐어의 투찌에 마을 개발 및 구호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하이티 투찌에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하이티는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투찌에라는 마을은 쓰레기 더미 위에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대략 100호 정도의 가정에 20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가난한 도시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80% 이상의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빈 병을 줍거나 먹을 만한 음식이 있는지 찾는 것이 그들의 일과입니다. 또 사회 기반시설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과 아이들이 병균과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양육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살부터 10대 후반의 아이들은 학교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월드쉐어가 투찌에 마을에서 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월드쉐어는 이곳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공부방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급식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방 사역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먹고살기도 어려운 이곳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부모와 이웃주민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니, 지금은 공부방과 학교를 확장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을 리더들의 호응도 커져 얼마 전에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기증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월드쉐어를 신뢰하고 있고, 마을 개선을 향한 그들의 의지와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부방에서는 80명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 이 아이들에게 매달 35달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0명의 아이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마을의 200명 아이들 모두를 교육하고 또한 35달러의 후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찌에 마을 선교 여행의 수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선교 기간을 통해 세이브 투찌에 캠페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면 한 사람의 인생 전부가 바뀐다”고 말하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찌에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난과 질병을 끊기 위한 교육 사업, 더불어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해본 경험도, 노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무기력함이 팽배해있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일부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해 그들을 격려하고 생활력을 고무시키려고 합니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람이 팔찌를 만들면 하루 6-7불 정도를 벌 수 있는데, 한 달에 180달러를 벌면 노동자의 한 달 수입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곳은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학급을 늘려 200명의 아이들을 모두 수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교 건축에 필요한 금액이 3만 달러 가량인데 이를 위해 개당 20달러에 팔찌를 판매해 수익금으로 아이들을 후원하고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또한 학교는 아이들 교육만이 아니라 성인들의 자활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도 될 것입니다. 이번 선



세이브 투찌에 캠페인의 일환으로 투찌에 마을 학교 건립을 위해 월드쉐어에서 판매하는 팔찌



월드쉐어 후원을 통해 웃음을 되찾은 쌍시

교 여행을 통해 이런 세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투찌에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일할 수 있는 직업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월드쉐어가 간단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일함으로써 오는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학교 건립과 더불어 직업 교육이 수반되면 제2, 제3의 프로젝트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티 투찌에 마을 주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먼저는 팔찌 구매로 하이티 투찌에 마을 사람들을 후원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개 이상 구입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투찌에 마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투찌에 마을 팔찌 판매의 수익금은 다른 지역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을 학교 건립과 후원 수혜

자 확대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미주 한인 교회와 사회단체에서 하이티 투찌에 마을 개발과 구호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드 쉐어의 역사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월드쉐어는 설립자 권태일 목사가 1986년 11월 충무로 육교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화상을 입은 채로 구걸하고 있는 이성의 아주머니를 도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립의 의지를 심어 주어 내일의 소망을 심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17개국, 아프리카 8개국, 중남미 4개국 등 전 세계 30개국에서 고아들을 위한 그룹 홈과 1:1 결연, 지역개발사업, 의료보건사업, 식수위생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NGO단체로 가난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의료지원, 구호사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민족,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식수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식수사업 개선, 말라리아,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의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보건프로그램,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의 생계와 교육을 위한 고아 그룹홈 설립, 지원 및 결연아동 후원 지구촌 나눔 정신의 확산과 청년 비전을 위한 해외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드쉐어를 통해 후원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팔찌 구입은 미국에서는 전화 323) 578-7933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월드쉐어를 통한 후원은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이 가능하며 기업이나 단체는 기금 후원, 물품 후원, 캠페인 참여, 자원봉사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문의도 같은 번호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하이티 투찌에 마을 주민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 이은태 목사를 붙잡아 준 인생 말씀

이른 비의 기적 I 늦은 비의 기적 II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은태 지음 / 1권 232면 / 13,000원

이은태 지음 / 2권 252면 / 13,000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끼니를 걱정했던 이은태 목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세 개의 빌딩과 영어 학교,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 대형 쇼핑몰과 크리스천 캠프장을 운영하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기적!

위클리프를 비롯한 17개 선교 기관들을 섬기고, MEC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20여 년간 2,300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뉴질랜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히 증거한다.



기독교일보와 함께 하는 꿈의 성지순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0박 11일

예루살렘 단기선교 팀원 모집

믿을 수 있는 현지선교사의 인솔!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일시**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10일(목) 10박 11일
- 대상**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일반성도 등)
- 접수마감** 2019년 7월 15일(월) 접수시 \$500 디파짓
- 모집인원** 40명 인솔 : 현지선교사 (GMS 소속, 강태윤 선교사)
- 회비** \$2,500 (비행기표, 숙식 포함) 회비는 3회 분할 은행구좌로 납부

은행 구좌
Bank of America
NAME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라우팅번호 : 121000358 계좌번호 : 325104511374
Pay to the order: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Check 보낼곳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 1회 > 7월 30일까지 \$500, 2회 > 8월 30일까지 \$500, 3회 > 출발 7일전 \$1,000
- * 여행취소는 여행 30일 전에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위약금 \$500입니다

여행	상세 일정	교통편 및 식사
1일	이스라엘 도착	항공, 기내식
2일	예루살렘 지역 (감람산, 승천 돔, 주기도문 교회, 벳바게, 파노라마, 눈물 교회, 갯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 통곡의 벽, 기혼샘, 히스기야 터널, 시온산, 다윗묘, 마가의 다락방, 베데스다 못, 채찍 교회 십자가의 길, 성묘 교회)	전용차량, 현지식
3일	사해 지역 (요단강 세레터, 맛사다, 엔게디폭포, 쿨란 공동체(사해 사본 발견지), 사해수영, 여리고, 시험산)	전용차량, 현지식
4일	베들레헴 탄생 교회, 우유동굴, 목자의 뜰헤브론, 막벨라 굴, 헤로디움, 드고아 아모스선지자 고향, 헤르툼 동굴	전용차량, 현지식
5일	사무엘 묘, 벤엘, 사마리아성, 야곱의 우물, 세겜, 그리심산, 실로 조망	전용차량, 현지식
6일	유대광야 요단계곡, 벤산, 텔단, 가이사라 빌립보, 골란고원, 팔복교회, 갈릴리 호수 배타기, 갈릴리 호텔 숙박	전용차량, 현지식
7일	오병이어 교회, 베드로 수위권 교회, 가버나움, 가나혼인교회,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 므깃도, 갈멜산 무흐라카, 지중해 가이사라	전용차량, 현지식
8일	에인카렘, 세례요한 고향, 벤세메스, 소렉골짜기, 아세가, 엘라골짜기, 빈구브린, 아돌람굴, 라기스	전용차량, 현지식
9일	네게브 남방, 브엘세바, 초대수상 빈구리 온묘, 엔 아브다트, 아브다트, 마크테시 라못 분화구	전용차량, 현지식
10일	휴식	전용차량, 현지식
11일	본국으로 출발	항공, 기내식

주관 : 기독교일보(사업본부) T.(213)739-0403, (213)330-511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 BIZPOST GROUP, 한우리여행사